임인년 정초기도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여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법주사에서는 임인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정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하루의 계획은 그날 아침에 세우듯이,
한 해의 계획을 정월에 불공을 통해 설계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을 대박으로 받을 수 있는 공식과 비법은 간단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을 받으려면 복을 지으면 된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정초기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 도 입 재** : 불기 2566년 **2**월 **3**일(음 정월 초삼일)
- **기 도 회 향** : 불기 2566년 **2**월 **9**일(음 정월 초아흐레)
- **기도동참비** : 가구당 **3**만원
- **동 참 계 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 543-4755 / 종무소 (043)543-361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2 | 1

부처님 말씀 말과 행동 조심 / **이달의 법문**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 **주지스님 법문** 무상하다 / **걸망메고** 불자의 마음가짐 / **감로의 글** 고승의 선시로 하루를 시작한다 / **수행여화** 첫 눈 내린 아침에 / **법주사 소식** / **다도회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 **운맞이 일년기도** / **약사여래불 천일기도** / **입춘기도** / **삼재풀이**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교리강좌 개설** / **임인년 정초기도**

말과 행동 조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부추기는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불화를 가져오는 말과 행동은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

빈말을 하지 마라.

자신을 잘 알면서 사악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생활이나 지식, 도덕이나 계율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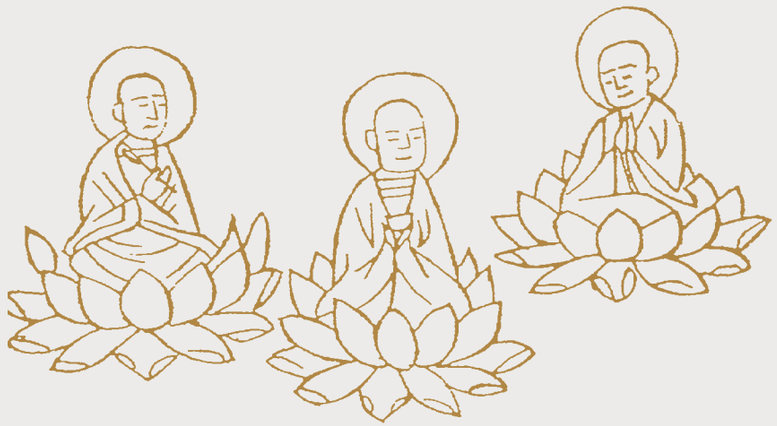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행자는 사람들로부터 갖은 욕설을 먹더라도 자기감정을 나타내서는 안되며,

거친 말로 대답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수행자는 어떤 경우에도 적대적인 대답을 하지 마라.

〈수타니파타〉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2 1 | 통권 360호



2 부처님 말씀 말과 행동 조심

4 이달의 법문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8 주지스님 법문 무상無常하다 정도 스님

10 걸망메고 불자의 마음가짐 진정 스님

12 감로의 글 고승高僧의 선시禪詩로 하루를 시작한다 진향심

16 수행여화 첫 눈 내린 아침에 현진 스님

19 법주사 소식

20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21 운맞이 일년기도 / 약사여래불 천일기도

22 입춘기도 / 삼재풀이

23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교리강좌 개설

24 임인년 정초기도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6(단기4355)년 1월호 통권 360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과거는 오지 않았고
미래는 가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무름이 없으니
삼세가 모두 텅 비고 허전하다.

이 안에서 세월을 주관하는 천자존신을 알겠는가.
만일 안다면 가장 새로운 해와 달이요.

특별한 하늘과 땅이 될 것이니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과 같은 재앙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법문은 고려 때 진각혜심 화상께서 새해를 맞아 문인들에게 이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새해를 맞아 여러분에게 다시 이 법어를 들려주는 것은 이 말씀에
우리 불교인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희망을 품고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해 미처 하지 못한 일을 올해는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한 달 두 달 보내면 또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이렇게 보낸 세월입니다. 올해 맞이한 새해도 이렇게 맞이한 새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매년 헛된 꿈을 꿉니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며 과거는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가올 세월을 기다리며 희망에 부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날은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 해도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진각 국사가 역설적으로 과거는 오지 않고 미래는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아함 〈온천림경〉에서
수행자가 평생 간직할 좌우명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또한 미래도 바라지 말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모든 일에 대해서만
항상 올바르게 생각해야 하나니
참으로 슬기로운 사랑이라면
불변하는 것은 없다고 아느니라.

이렇게 성인의 행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없다.
그는 결코 근심이 없을 것이니
큰 고통과 재앙은 여기서 끝나리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재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를 잘 살기 위해서는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일기일회一期一會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매 순간을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기일회란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한 번만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다 한 번뿐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원이란 시간도 하루하루 소중한 순간이 모여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절대 현재의 시간입니다.
이 절대 현재의 순간을 놓치면 백만금을 주고도 그 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매사를 울고 짜면서 안 된다고만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길일을 고르고 액일厄日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좋은 날인가 나쁜 날인가는 마음이 어떠한가에 있지,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과 집착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고, 편안한 날이고,



소중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無事之重了事人
飢來喫飯因來眼
無事之中有事人
飢不喫飯因莫眼

일없는 가운데 일을 마친 사람은
주리면 밥 먹고 곤하면 잠자지만
일없는 가운데 일이 있는 사람은
주려도 먹지 말고 곤해도 자지 말라.

무상無常하다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한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이면
새로운 달력을 걸면서
시간이 언제 그렇게 갔는지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무상하다는 것은 서글픈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다가오고 무엇인가는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서로 작용한다는 것은
홀로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더욱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기분 좋은
무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불자의 마음가짐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우리가 받아들이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올바르게 실천하며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보며,
아내가 집을 나간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불교 역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2년간의 코로나로 인해 국가와
사회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반복된다.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이 이해된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인의 마음 자세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볼 수 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불평 없이
기다리는 마음이 종교인이 가져야 하는
가장 경건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되면 그 새로운 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 자식이 자라서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할 때 그 기쁨, 특히 첫아이의 입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또 딸자식이 자라서
처음 시집보낼 때 그 마음, 사랑하면서
무엇인가 처음 느낄 때 그 마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며
원동력이 된다. 이것은 사랑하는 지아비나
지어미에게 느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며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는 듯이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상 사회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소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써 이상적인 사회와 아울러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잘 되었다고 해도 그 제도에 의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 이상에서 우리 생활 풍토에
알맞은 민주주의가 토착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의 초발심에도 관계가 있다.
우리가 초발심으로 처음 접할 때 느낀 그 마음,
그 마음이 변치 않을 때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으로
아난을 들 수 있다. 아난은 25년 이상
부처님을 따라다녔다. 그날도 붓다의 깨달음을
전도하러 가는 상황에서 아난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교단의 회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쭙기를
'붓다여! 우정이란 불교의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난이여, 우정이란 불교 전부이다.'
그것은 신격화가 거부된 불교에서는 같은
무리가 모여서 살아가는 것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우정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신격화가 거부된 불교는 큰 역사다.
불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사성이다.
불교란 무엇인가 분명히 쉽게 와 닿는 것이 없다.
그러나 절대로 어려운 것도 없다.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분명히
전달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났다고 해서
몸을 받은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틀린 것도 없지만 같은 것도 없다.
그와 같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불교란
즉 인도, 중국, 일본이 다 틀리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올바르게 실천하며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

고승高僧의 선시禪詩로 하루를 시작한다.

진향심盡鄕心 법주사 템플스테이 팀장



행복의 토대가 마음 챙김이라 합니다. 행복해지는 기본 조건은 행복한 상태를 의식할 줄 아는가입니다.
이미 행복함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다면, 진실로 행복해질 수 없겠지요.
며칠 전 아침, 새벽 예불을 위해 방문을 여는데 순백의 세상이었습니다.
새벽 달빛마저 신비로워 절대 풍광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구의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는 깨끗함. 밤새 내린 흰 눈이 세상의 색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녹게 마련이고, 눈이 녹으면 세상은 본래의 색으로 돌아옵니다.
깨달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뀌는 것임을 하얀 눈을 통해 알아차리며
법당으로 가는 길에 서산대사의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를 고요하게 읊조리며 걸었습니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눈 내린 들판을 밟으며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걷지 말지니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누구도 밟지 않는 눈길을 걸으며, 범종각 앞에 섰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의식儀式이 있고, 거기에는 엄숙함과 경건함이 깃들어 있지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지만 다양한 의식이 행해집니다.
속가의 사람들이 깊이 잠든 이른 새벽, 가사를 걸친 스님들이 부처님께 정성껏 예불드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숙연해지지요. 범종각 주련에 쓰인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대웅전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만 들어도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번뇌는 반드시 선정을 닦아야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듯 합니다.
소리를 통해서도 마음이 정화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새벽 법고 소리에 세속의 번잡함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깊은 감동에 젖어 듭니다.
당나라 영명연수 선사는 중생은 소리를 따라 윤회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중생은 소리를 통해

윤회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임을 알아갑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방에서 고요하게 앉아 찻물을 올려놓고, 끓어오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관에 찻잎을 넣고 차를 우립니다. 그 시간에 마신 차 맛은 일품이지요.
흡족한 마음에 향 하나 새로 사르고는 선시집을 펼치고 읽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가 행복이지요. 수행이라는 이름의 행복이 살포시 내게로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예불 후 맑은 마음으로 선시를 읽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삶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유하는 시간입니다.
선시를 읽는다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선사들과 함께 명상하는 가슴 벅찬 일이지요.


진각혜심 스님


서산대사


한산 스님, 습득 스님

선어禪語를 통해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비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각혜심 스님이 제자인 요묵 스님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쓴 시 '요묵에게'를 읽습니다.

"마음은 항상 명료하게 입은 함부로 열지 말라
한가한 바보처럼 살다 보면 마침내 도를 얻으리니
수행자의 바랑은 송곳을 감추어 끝을 보이지 않아야 이른바 훌륭한 고수로서
진실한 소식을 얻으리"

이 시는 송곳을 옷 속에 감추라고 말합니다.
지식이나 지혜를 함부로 내보이지 말고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말이지요.
지혜이든 지식이든 잘못 꺼내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시를 통해 수행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당나라 때 습득拾得은 국청사에서 한산, 풍간과 함께 지내며 선시를 읊고 탈속한 일화를 남긴 선승이며,
그의 일화는 유명하지요.

한산이 습득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습득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참고 그에게 양보하고, 견디며, 그를 존경하면 되지"라고 하였답니다.
습득 스님은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한 스님으로 유명합니다.
스님은 머리가 나빠 경전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고, 염불에도 영 소질이 없었지요.
아침에 외운 염불은 저녁이면 다 까먹었으며,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마당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스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웅전 앞마당을 쓸었습니다.
봄엔 정갈한 마당에 꽃잎 몇 장이 날아와 봄의 정취를 드러냈고,
가을에는 나무에서 떨어진 단풍잎이 마당을 수놓았습니다.
스님은 매일 지극한 마음으로 마당을 쓸다 보니 막힌 마음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3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지요.

이렇게 나는 옛 선지식들의 시와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담아 사유하고
오늘의 삶에서 반조하며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일상사가 곧 수행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글 선시禪詩. 진리가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달으며
지금 현재에 집중해야 할 이유도 배웁니다.

첫 눈 내린 아침에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어제 저녁 무렵부터 세설細雪이 날리더니 밤새 함박눈이 내렸다.
올해의 첫 눈이라 더 반갑다. 빗소리는 요란하여 소식을 알 수 있지만
소복소복 쌓이는 눈은 기척 없이 방문한다. 밤사이에 다른 그림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으니 몰래 이벤트를 준비하는 마술사 같다.
창을 열어보니 온통 설국이 되었다. 나무 가지마다 설화가 피어 온 천지가
같은 빛으로 단장했다. 설백의 풍경에 떠가는 구름도 그 방향을 잊어버렸는지
산등성이에서 멈추었고, 새들도 늦잠에 빠진 듯 고요한 아침이다.
오늘은 방문객이 없는 날이라 부랴부랴 눈길을 만들지 않아도 되므로
여유를 맘껏 부려도 상관없다. 이미 큰길은 마을에서 장비를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해 놓은 터라 느긋하게 설경을 더 즐겨도 된다.
마음 같아서는 마당에도 길을 내지 않고 저 상태로 오래 두고 싶다.
사람 발자국 하나 없는 설원은 그 자체로 완벽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눈 내린 아침에는 밖의 풍경을 방 안에서 감상하며 차 마시는 일이 최고의 호사다.
화로에서 찻물이 끓어 모락모락 김이 오를 때 음악 선율이 잔잔히 받쳐주면
그야말로 산중락이 따로 없다. 홀로 즐기는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수행 일상이 조금은 지루하고 밋밋했을 것이다. 겨울 설경과 마주하는
이 감성을 어찌 전할 수 있으며 이 기쁨을 그 무엇으로 대신하겠는가.
그 어느 곳보다 산사의 설경은 가히 아름답다 할 것이다.

얇은 이불에 찬 기운 스미고 등불도 어두운 데,
어린 사미승은 한 밤 내내 종을 치지 않는다.



잠 깨워 일찍 문 열고 나가자면 아마도 투덜대겠지,
그렇지만 암자 앞의 눈 덮인 소나무는 함께 보고 싶다.

고려 후기 관료였던 이제현李齊賢의 〈산중설야山中雪夜〉라는 시다. 이 나그네도 가난한 암자에서
하룻밤 잠을 청했으나 새벽녘에 잠이 깨어 눈 내린 산중 분위기를 나지막이 읊조리고 있다.
동자승은 예불 종치는 것도 잊고 늦잠에 빠졌는데, 나그네는 아침 설경이 몹시 궁금하지만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깨울까 말까를 고민하는 장면이 저절로 그려진다.
이처럼 암자의 설경은 과객의 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압권일지도 모르겠다.
뭐니 뭐니 해도 겨울 안거安居의 매력은 눈 내린 풍경을 보는 일이다. 아마 이런 맛이 없으면

산중의 즐거움은 반감되었을 것이다. 텅 빈 겨울 숲에 눈이 쌓여야 한 폭의 수묵화가
비로소 완성된다. 자연이 그려내는 한 겨울의 풍경화를 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셈이다.
수선화 정원에 덮어 두었던 보온볏짚이 바람에 저 만치 날아가 있지만 이따 날이 풀어지면
손을 봐 줄 생각이다. 아침부터 찬바람 맞으며 눈밭 이리저리 어지럽히며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서다. 촌각을 다투는 급한 일 아니면 짐짓 게으름을 피워도 좋다.
동파를 대비하여 이미 해우소 물도 단단히 잠궜고 보일러 창고도 난방을 해 두었으니
올해는 안심해도 될 듯하다.
이 모두가 지난겨울의 교훈이다. 참으로 작년 겨울 한파는 지독하고 길었다.
여기 살면서 처음 겪는 사건들이였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낡고 녹슨 수도관이 터져 한겨울에 물바다가 되었고,
심지어 온수통이 얼어붙어 씻을 수 없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지하수 배관마저 얼어
손님을 받지도 못했다. 겨울을 여러 번 보냈지만 이런 경우는 당해보지 못했던 터라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탓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 배운 것도 많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혹한대비를 철저히 했다.
아예 장작까지 여러 짐 준비해 두었으니 갑자기 추위가 닥쳐도 걱정 없다.
이제는 수도꼭지나 변기부품들은 내가 교환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작년에 기술자들이 고치는 것을 옆에서 눈 여겨 보아 둔 덕분이다.
물이 터져 줄줄 새는 것은 임시로 손 볼 수 있으니 무엇이든 상황이 급해야
배우게 되는 모양이다. 어떤 사건 하나를 해결할 때는 당황하고 머리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또 하나를 배우는 것이다. 세상 공부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눈 내린 날은 사립문 닫고 종일 무료하게 지내고 싶다.
인적 끊어진 암자처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내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
혼자 있다한들 무슨 근심이 있으랴. 낮에는 설경이 위로해 줄 것이고,
밤이면 달빛이 내려와 벗이 되어 줄 테니 더 이상 빈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때에 월백月白 설백雪白 천지백天地白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12월 4일 초하루법회



12월 22일 동지기도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2022. 1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11.29 새해첫날 월남대종사다례 광명진언기도 해맞이 법회
2 30	3 12.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다도반 법회 보현회 법회	4 2 합창단 법회	5 3 신중기도회향 소한	6 4	7 5	8 6 어린이법회
9 7	10 8 약사재일 성도재일	11 9	12 10	13 11	14 12	15 13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어린이법회
16 14	17 15 보름 다도반 법회	18 16 미륵재일철야기도	19 17	20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대한	21 19	22 20 보월대선사다례 어린이법회
23 21 30 28	24 22 31 29 범행대종사다례	25 23	26 24 관음재일	27 25	28 26	29 27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30분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미륵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후 3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후 2시 3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운맞이 일년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대웅보전에서 새해 운맞이 일년기도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가족의 건강과 소원성취 이루십시오.

■ **입　　재** : 불기 2566(2022)년 **1**월　**1**일(음 11월 29일) 토요일
■ **회　　향** : 불기 2566(2022)년 **12**월 **31**일(음 12월　9일) 토요일
■ **동 참 금** : **3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약사여래불(원불) 모시는 분 천일기도 올려드립니다





■ **동참금** : 108만원
■ **동참계좌** : 농협 351-1124-3093-43
법주사



입춘기도



입춘은 처음 찾아오는 절기로서 봄을 알리는 시점인
동시에 역학으로는 새해가 처음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입춘대길이나
소문만복래 등의 글귀를 써서 기둥이나 대문에 붙이고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삼재가 들면 모든 일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삼재 불공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춘을 맞이하여 법주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를 봉행하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 **기 도 입 재** : 불기 2566년 **1**월 **29**일(음 12월 27일) 토요일
■ **기 도 회 향** : 불기 2566년 **2**월 **4**일(음 1월 4일) 금요일
■ **기도동참비** : **3**만원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및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삼재기도

삼재가 들면 모든 일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삼재불공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지를 맞이하여 법주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를 봉행하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66년 **2**월 **4**일(음 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1인 **3**만원(기도비,부적 포함) 오곡비 **1**만원
■ **준 비 물** : 속옷 1벌(착용한 것도 가능)
※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들삼재입니다.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1**월 **1**일(음 11월 29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22년 **1**월 **15**일(음 12월 13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알기쉽고 재미있는 교리강좌를 개설합니다

■ **일　시**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낮 12:30분 ~ 01:30분** 1시간
■ **장　소** : 법주사 강의실
■ **내　용** : 경전에 근거한 교리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 **대　상** : 법주사 불자라면 누구나
■ **강　사** : 법주사 교무국장 두진스님
■ **참가비** : 무료

